

황금 알을 낳는 닭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의좋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제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 노릇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몹시 가난한 살림살이였지만 날마다 부지런히 일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밥, 저녁에는 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나뭇단을 지게에 지고 장으로 갔습니다. 닭새에 한번 열리는 장날이었습니다. 장터에는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아침부터 북적거렸습니다.

형제는 장터 한구석에 나뭇단을 쌓아 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오, 너희들 왔구나. 나무를 베느라 고생이 많았지?”

형제에게 인사를 건넨 것은 단골 손님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어린 형제가 고생이 많다며 언제나 나무를 사 주었습니다.

나무 값을 받은 형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돈을 더 주셨는데요. 나무 값이 너무 많아요.”

“그냥 넣어 두어라. 나한테 좋은 나무를 주는데 그 정도 값은 받아야지.”

형제는 아저씨의 집에 나뭇단을 날라다 주었습니다.

“고마운 아저씨야. 저 분 덕분에 오늘도 나무를 다 팔았어.”

“아저씨는 어쩌서 우리한테만 나무를 사실까? 오늘은 나무 값을 더 주 시기까지 했잖아.”

“그건 우리가 불쌍해 보여서일거야. 부모님도 없이 둘이서 고생한다고 늘 안쓰러워하시잖아.”

형제는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닭새 동안 먹을 양식을 샀습니다.

장터 입구에서는 어떤 남자가 병아리를 팔고 있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노란 병아리들이 빼약빼약 울고 있었습니다.

“병아리 사세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병아리예요. 병아리가



작가 | 신현배

4201708@hanmail.net

약력

시인, 아동문학가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에 당선

창주문학상, 청구문학상, 광명문학

대상 수상

시집 <거미줄>, <매미가 벗어 놓은

여름> 외 지은 책 다수

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아 병아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병아리를 사세요.”

동생이 병아리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형, 나도 병아리를 키우고 싶어. 병아리 사 줘.”

“안돼. 다음 장날에 나무가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씨, 형은 하나만 알았지 둘을 몰라. 아저씨가 그랬잖아. 병아리가 자라서 닭이 되고, 닭이 알을 낳아 병아리가 된다고.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

동생은 형에게 병아리를 사 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병아리를 사 주지 않으면 나무를 베러 다니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형은 할 수 없이 동생에게 병아리 한 마리를 사 주었습니다.

병아리를 키우는 것은 동생 몫이었습니다. 동생은 정성을 다해 병아리를 돌보았습니다. 때맞춰 모이를 주고 마실 물도 챙겨 주었습니다.

“형, 우리가 집에 없을 때 족제비나 고양이도 병아리를 해치면 어쩌지? 어쩔 때나 솔개가 병아리를 낚아챌지도 몰라.”

“그럼 우리를 만들어 그 속에 가둬두면 되잖니. 배고프면 먹으라고 모이도 넣어 주고...”

“아참, 그렇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동생은 병아리를 위해 커다란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병아리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는 포동포동한 암탉이 되어 알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암탉이 알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알보다 몇 배가 더 크고 황금빛을 띠었습니다.

“형, 알이 이상해. 꼭 황금 덩어리 같아.”

“그렇네. 오늘이 장날이니까 달걀 가게에 가서 팔자. 보통 달걀보다 몇 배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형제는 나뭇단을 팔러 장터에 갈 때 알도 가지고 갔습니다.

“아저씨, 달걀 사세요.”

달걀 가게 주인은 알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보통 달걀이 아니라 황금 알이네.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니?”

“우리 집 암탉이 낳았어요.”

“뭐, 뭐라고? 이것은 먹을 수 있는 알이 아니라 황금 덩어리란다. 금방에 가서 팔아야겠다.”

형제는 황금 알을 들고 금방에 갔습니다. 금방 주인은 황금 알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달걀 모양의 황금 덩어리네. 너희들, 이거 어디서 났니? 혹시 도둑질한 거 아니니?”

“우리를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황금 알은 우리 집 암탉이 낳은 거예요.”

“그래? 암탉이 황금 알을 낳다니 참으로 신기하구나. 애들아, 다음에 또 암탉이 황금 알을 낳으면 우리 가게에 꼭 가져와야 한다. 다른 가게에 가져가지 말고. 알겠지?”

금방 주인은 신신당부를 하며 자루에 돈을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형제는 돈 자루를 받고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습니다.

“형, 이게 다 우리 거야?”

“그래, 황금 알을 팔고 받은 돈이잖니.”

“신난다. 형, 이 돈으로 우리 쇠고기를 사자. 나는 그 전부터 쇠고기가 먹고 싶었거든.”

“좋아, 고깃간에 가자.”

형제는 고깃간에 들러 쇠고기를 샀습니다. 그



리고 쌀가게에 가서 쌀을 한 가마니 사고, 옷가게에 가서 옷을 샀습니다. 그래도 돈 자루는 줄어들지 않고 거의 그대로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형제는 마당에 숯불을 피우고 쇠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담장을 넘어 이웃집에까지 퍼졌습니다.

안방에 있던 이웃집 아주머니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고기 굽는 냄새네. 명절도 아닌데 어느 집에서 고기를 굽는 거야?”

아주머니는 슬그머니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는 옆집에서 풍겨 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 가난한 나무꾼 형제네 집에서 고기를 다 구워?’

아주머니는 담장 너머로 옆집 마당을 훑쳐보았습니다. 형제가 숯불에 쇠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 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저 녀석들 봐라. 남의 소를 훑쳐 와서 고기를 굽고 있구나. 저놈들을 관가에 고발해야겠다.’

그 때 ‘꼬끼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형, 우리 닭이 또 황금 알을 낳았나 봐.”

“그런가 보다. 어서 가 보자.”

형제는 고기를 굽다 말고 우리로 달려갔습니다. 암탉은 이번에도 알자리에 황금 알을 낳았습니다. 형제는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형, 우리 닭이 날마다 황금 알을 낳으면 우리는 금방 부자가 되겠지?”

“물론이야. 앞으로 나무꾼 노릇을 하지 않고 편히 살게 되었어.”

아주머니는 담장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는 군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닭이라... 저 닭만 있으면 큰 부자가 되겠구나.’

이 아주머니는 평소에 형제에게 보리쌀 한 뿔박 꾸어 주지 않는 노랑이였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황금 알을 낳는 닭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는 쌀과 김치 그릇을 들고 형제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너희들, 부모님도 없이 얼마나 고생이 많니?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라도 받아라. 이웃끼리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참! 너희 집에 있는 닭이 황금 알을 낳는다며?”

“예, 아주머니.”

“신기한 닭이로구나. 애들아, 그 닭을 나한테 빌려 주지 않을래? 딱 하루만 말이야. 우리는 이웃사촌인데 서로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나.”

“좋아요. 저희에게 쌀과 김치를 주셨는데 우리도 보답을 해야지요.”

마음씨 좋은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암탉을 빌려 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암탉을 자기 집 벽장 속에 가두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 집에 황금 알을 낳는 닭이 있어요. 모두들 구경하러 오세요.”

이윽고 아주머니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안방뿐 아니라 마당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주머니는 벽장문을 열고 암탉에게 말했습니다.

“암탉아, 암탉아. 황금 알을 낳아 나오.”

그러나 암탉은 황금 알을 낳지 않고 아주머니만 멀뚱멀뚱 바라보았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닭이 어디 있다고 그래? 저 여자에게 속았네.”

“사기꾼이야, 아니면 머리가 어떻게 되었든가.”

사람들은 아주머니를 비난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습니다.

“황금 알을 낳지 않아 나를 망신시켜? 못된 녀석!”

아주머니는 암탉을 집어 들어 대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바로 그 때 사냥을 나온 왕자가 아주머니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암탉은 갑자기 왕자의 발목을 짊 물어 버렸습니다.

“아야! 이거 놓지 못해!”

왕자는 몸부림치며 닭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암탉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할 수 없이 닭을 발목에 매단 채 대궐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전국 방방곡곡에 이런 내용의 방이 나붙었습니다.

‘왕자의 발목을 물고 있는 닭을 떼어내는 자

에게는 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 방을 읽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궐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암탉을 왕자의 발목에서 떼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자는 걱정 근심 때문에 나날이 몸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한편, 형제는 아주머니에게 닭을 찾으러 갔다가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우리 닭이 왕자님의 발목을 물었는데 놓지 않고 있다고요?”

“아유, 죄송해라. 왕자님은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우실까?”

형제는 왕자를 구해드려야겠다며 대궐을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암탉의 주인입니다. 왕자님을 뵈게 해 주십시오.”

“알겠다. 잠시만 기다려라.”

이윽고 왕자가 다리를 질질 끌며 형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닭은 형제를 보더니 왕자의 발에서 떨어져 푸드득 날아왔습니다. 동생은 닭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왕자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저희 닭 때문에 왕자님이...”

“아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닭에서 풀려나 목숨을 건졌지 않니. 약속대로 너희에게 이 나라의 절반을 주마.”

형제는 황금 알을 낳는 닭 덕분에 나라의 절반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닭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